

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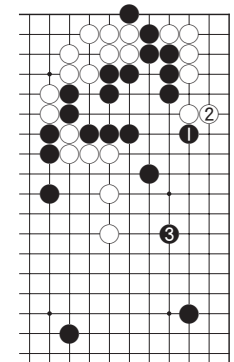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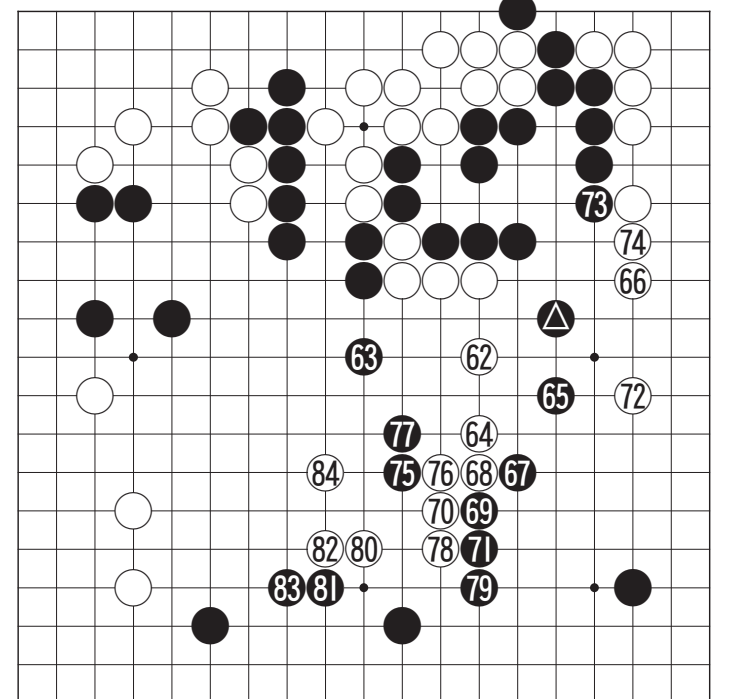


이것이 역대 국수들의 손

경매회사인 지지옥션이 최근 개최한 사람의 바둑대회 경매 이벤트에 출품된 역대 국수들의 손을 본뜬 조형물. 경매는 지지옥션 홈페이지(http://www.ggi.co.kr/)에서 진행됐으며, 조형물은 최저가 3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조훈현·서봉수·김인·최철한·루이 조형물' (한국기원 제공)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4보(62~84)

白 박명수 5단 (농협)
黑 이창준 5단 ((주)송림)



<참고도>

면 중앙에 약한 말이 있어 백은 집힐 곳이 없다. 일단 집으로는 말리지 말자는 생각이 지배하자 박명수 5단은 흑 71에서 또다시 손을 빼 72로 일단 쟁기고 보자는 식으로 버텨온다. 이럴 때가 공격하는 입장에서 가장 근혹스러운 때다. 대마를 놓치고 나면 실속에서 밀려 집부족이 되는 수가 허다하다. 빛좋은 개살구 격이 되고 만다. 흑으로는 뭔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창준 5단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흑 75로 급수를 짚어가며 응징에 나선다. 백 대마는 무사할 것인지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65로 진군했는데 이 수가 또 박명수 5단의 승부급수를 촉발시킨다. 백 66이 일종의 승부수로 중앙대마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지만 집에서 말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므로 흑 65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붙여 압박하고 3으로 집되는 곳을 차지해 집으로 추격할 의지를 꺾어야 했다. 이것이라

나이를 잊은 투혼에 박수를

'남녀 성대결' 지지옥션배, 조훈현 노익장 화제
막판 박지연에 덜미 6연승 끝... 과연 '명불허전'



조훈현(54) 9단이 세월을 거스르는 활약으로 바둑 팬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았다. 조 9단은 남성과 여류기사들이 벌인 성대결 단체전인 1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에서 전성기를 방불케하는 행마를 선보였다. 이 대회에서 최초의 성대결 결과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팬들의 눈길은 온통 조훈현 9단에 쏠렸다. 조 9단은 마지막 대국인 제22

국에서 여류팀의 7번째 주자 박지연은 7단계까지 막혔지만 무려 6연승을 질주,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그는 남자팀 출전선수 12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1 : 8이라는 중과부적을 딛고 6연승을 일궈냄으로써 '명불허전(名不虛傳)'을 실증했다. 이 때문에 여류기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기쁨 보다는 쓸쓸한 뒷맛이 앞섰다. 시니어가 젊은 기사들로 구성된 여류팀에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바둑은 뚜껑을 열자마자 '여류천하'로 대세가 굳혀졌다.

박지연 초단의 초반 돌풍과 김은선 3단의 4연승 등 초반부터 여류팀이 시니어를 압도했다. 백전노장 서봉수도 단 1승도 채우지 못하고 단 한결에 무너질 정도. 그러나 막판 앞에 등불같은 시니어 팀에는 '황제' 조훈현이 있었다. 조 9단은 서 9단을 꺾은 김은선 3단계에 앙갚음한 것을 신호탄으로 정관장배 한국최종 주자로 나가 5연승으로 역전 우승의 주역이 됐던 이민진 5단과 윤영민 2단으로부터 차례로 항서를 받아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루이나이웨이 9단 다음으로 나올 것으로 짐쳐지던 조혜연 7단까지 나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육일승전하는 조

9단의 상승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 9단은 이번 대회에서 전성기 때의 녹슬지 않은 기량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시니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속기바둑에서 젊은 기사들을 압도한 것이다. 사실 이번대회에서 요규철, 서봉수 등 노장들은 속기에 취약한 아킬레스건 때문에 여자 기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밀렸다. 그러자 조 9단은 젊은 시절을 연상케하는 '빠른 손'으로 여류들을 압도했다. 조 9단이 젊은 시절 속기의 귀재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같은 조 9단의 활약을 지켜본 바둑팬들은 그가 50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하나의 우승을 추가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총평을 내리고 있다. 통산 158회 우승이란 깨질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있는 조훈현 9단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 지 주목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왕중왕전 '내 품으로'

강동윤, 입단 5년만에 첫 결승 진출 성공
이창호, 김일환 돌풍 잠재우고 부활 꿈 꾸



<강동윤 5단>

전자랜드배 패권이 이창호와 강동윤의 대결로 압축됐다. 강동윤 5단이 지난 25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준결승전에서 백홍석 5단을 171수 끝에 흑 불계로 제압, 이창호와 패권을 다투게 됐다. 강 5단은 백홍석 5단이 중반전에서 한 차례 큰 실수를 범하자 곧바로 응징에 들어가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상반과 하반 백대마를 노리던 강 5단은 백홍석 5단의 버티수를 모두 뿌리치는 집요한 공격으로 50집이 넘어가는 하반 백대마를 대거 포획했다. 승리한 강동윤 5단은 입단 5년 만에 본격적인 첫 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강동윤 5단은 지금까지 이창호 9단과 역대전적에서 1패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강 5단은 현재까지 32승 12패로 다승부도 9위에 올라있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어 승부를 쉽게 잡힐 수 없는 상황. 특히 그는 제5기 오스카코리아배 신예연승 최강전 우승, 제9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 우승을 통해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상급 신예 기사다. 결승 3번기 1국은 7월 2일에 열린다. 이 대회는 각 10분에 초읽기 4초 3회(덥6집반)로 진행되는 속기대전이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하며 우승자는 2단, 준우승자는 1단의 특별 승단혜택이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창호 9단>

20연승 이세돌 이대로 쭈~욱

'다관왕' 이세돌이 연승기록에 도전한다. 이 9단은 지난 5월 13일 바둑리그서 목진석을 꺾은 이후 6월 17일 같은 대회에서 윤성현과의 대국 승리로 20연승 고지에 올랐다. 기록사상에 나선 이세돌의 1차 목표는 자신의 최다연승 기록인 32연승(2000년). 이세돌의 기록은 이창호가 지난 90년에 세운 41연승에 이어 역대 3위의 기록이다. 2위는 김인의 40연승. 이세돌은 7월 말까지 모두 열 판의 대국을 앞두고 있다. 명인전 리그 두 판, 물가정보매 및 바둑리그 각 한 판에 농심배 예선 여섯 판 등 모두 10판이다. 이세돌이 10국을 모두 쓸어담는다면 30연승 고지에 오르며 자신의 최고기록 경신에 2차 차를 다가서게 된다. 바둑계에서는 이세돌의 연승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중간에 한 판만 패해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승 기록이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세돌 9단>

다카오 신지, 日 본인방 타이틀 3연패 성공

일본 바둑 1인자 다카오 신지 9단이 일본 본인방 타이틀 장기집권을 선언했다. 다카오 신지 9단은 지난 25~26일 일본 나가타시에서 열린 제62기 일본 본인방전 도전 7번기 5국에서 도전자 요다 노리모토 9단을 20수 만에 흑 1집 반으로 누르고 본인방 3연패를 달성했다. 종합전적 4승 1패. 생애 두번째 본인방 타이틀전에 나선 도전자 요다 9단은 제3,4,5국에서 잇따라 무릎을 꿇으면서 본인방전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sub-sections: '대인동상업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대지부동산', and '특급상가 매매·임대'.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including address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국민공인중개사' section is particularly detailed, listing numerous properties with specific features and prices.